

카프로락탐도 가격 포물러 변경

Sumitomo, 아시아 가격산정방식 전환 ... 가격투명성 향상 명분

Sumitomo Chemical(住友化學)이 아시아 시장의 Caprolactam(CLP) 가격결정방식을 변경해 중국가격을 베이스로 한 Formula를 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후결정 방식 및 4분기 베이스로 돼 있는 한국, 타이완 소비자에게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카프로락탐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어 중국의 수급 밸런스를 신속하게 반영시키는 것이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길로 보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공급기업인 Ube Industries(宇部興産)도 선결정·단월방식을 제창하고 있어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카프로락탐 가격협상은 중국 수요기업에게는 Spot Base이지만 한국, 타이완에는 후결정 및 4분기 베이스로 돼 있다. 후결정 및 4분기 방식은 수량이 안정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4분기마다 결산공개에 필요한 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고 수급 밸런스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다.

또한 약 한달 반 걸려 아시아에 도착하는 유럽제품도 일정비율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달 확정짓는 방식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umitomo Chemical이 제창하는 신방식은 중국의 계약가격(인민화 베이스) 1달 평균치에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환율을 더해 달러 베이스 가격을 매월 말 결정하는 것이다.

중국가격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中國化纖信息, 中國化纖經濟信息의 데이터에 근거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3년 1년간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격과 기존방식에 의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평균가격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중국, 한국, 타이완의 카프로락탐 수요는 중국이 국산 18만톤, 수입 38만톤으로 총 56만톤, 한국이 국산 12만톤, 수입 21만톤으로 총 33만톤, 타이완이 국산 21만톤, 수입 31만톤으로 총 52만톤을 기록했다.

중국은 총수요, 수입량 모두 이미 아시아 최대로 중국의 수급은 아시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Ube Industries도 2월 이후 가격에 대해 한국, 타이완 수요기업들에게 선결정 및 단월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Sumitomo Chemical도 신방식을 제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10>